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二重過歲와 陰曆廢止 —朝鮮民曆을廢止하라—

一

過歲를 二重으로하는것은 精神、物質兩方面에 잇서서 幾多의 重大한 弊害를 끼치는것이다 첫재 精神上으로 보아 陰陽曆을 勿論하고 曆日에 新年第一日을 定하야 이날을 名節로 定하는데 잇서서 萬國이 一致해 잇는것은 이날을 特히 記憶하며、이날을 特히 다른날과 다르게 지냄으로써 過去를 回顧하며、現在를 反省하야 社會를 爲해서나 個人을爲해서나 將來、새로운計劃、새로운 決心、새로운 勇氣를 내게하자는 意味다。그런데 이제 一年에 同一한 名節을 둘을 둔다하면 이것이 心理上에 미치는 影響은 두때다 新年氣分을 못 가지는수가 잇거나、가진다고 할지라도 緊張味가 分散되여 意志上의 强力的効果를 못내고、惰性的懈怠弛緩에 流하는 弊端이 잇다。

二

둘재로 經濟上으로 본 二重過歲에는 二重歲末과 二重新年의 두가지 意味가 包含되는것이다。따라서 그弊害에 잇서서도 二重歲末과 二重新年의 兩大弊害가잇다。二重歲末의 重大弊害로 꼽을것은 商去來上의 信用破壞라는 一事다。보라、債權者는 陽曆歲末도 歲末이라하야 債權督促의 機會를 삼고、陰曆歲末도 歲末이라하야 債權督促의 機會를 삼지 안느냐? 이것을 얼핏 생각하면 債權者에게 有利한듯하지마는 他方、債務者側에 잇서서는 陽曆歲末에는 陰曆歲末로 미루우고、陰曆歲末에 가서는 歲末은 밟서 지내갓다고 한다。이것을 보면 二重歲末制는 商去來上의 信用破壞를 助長하는 重大原因이 됨을 알것이다。다음 二千三百萬의 全部가 二重新年을 맛는다고하면 物質上으로 莫大한 濫費를 結果할것은 勿論이어니와 個中에 한名節도 지내지 안는이가 잇다고하면 그들의精神上、物質上의 損害는 그보다 더 甚함이 업슬것이다。何故오하면 一日間의 勞働에도 休憩時間이 잇고、一週間에 한번 日曜休日制가 잇는理致로 알바와가티 大槪、休息、快樂와 非常營養의 攝取는 사람의 活動力養成의 原動力이 되여 잇는데 年中無名節은 이根本原則을 無視하는것이기때문이다。

三

그러니까 結局、그結論은 社會全體로보나 個人으로보나 한번 過歲는 업슬수 업는것이오、二重過歲는 지나친다는데 잇는데、한番은 絶對로 必要하다면 陰曆過歲냐? 陽曆過歲냐? 하는問題만이 남을것이다。그러나 이에 對하야 陽曆過歲를 反對하고 陰曆過歲를 主張할 理由와 勇氣를 가진이는 업슬것이 아니냐? 그러다면 實行이 問題인데、어떠케하면 陰曆過歲를 廢止할수가 잇느냐? 하면 이에 對하야 우리는 拔本塞源的으로 그根本을 잘너버리는 意味에 잇서서 太陰曆의 全廢를 提唱한다。이미 全世界의 主要列國과 步調를 가치하기爲하야 陽曆을 採用했다고 하면、陰曆이 常用되여야 될 何等의 理致가 업을것이다。天無二日이란 地無二王에 對한 比喩보다도「한社會에 二種曆非가 必要업다。」는 比喩로 쓸것이다。그런데 우리가 萬若 太陰曆을 全廢하는날 이면 二重過歲問題는 이에 따라서 自然히 解消될것이다。

四

太陰曆廢止問題와 關聯해 생각할것은 朝鮮總督府가 發行하고잇는「朝鮮民曆問題」다。總督府는 아마 朝鮮은農業國인데 多數의農民은 陰曆의 二十四季節에 依하야 耕耘、播種、秋收를 하고 잇스니까 그들의 便利를 돕는 意味로 朝鮮民曆을 發刊한다 생각하고 잇는지 모르나、우리의 見解로보면 이것은 一大錯覺이다。陰曆의 二十四季節이란것自體가 清朝、康熙乾隆時代에 太陰曆의 缺陷을 補塡하는意味로 太陽曆을 加味한것이 아니냐? 故로 春分、秋分이 陰曆으로는 日字가 一定치 아니하나 陽曆으로는 一定해 잇지 아니하냐? 故로 陰曆의 全廢를 主張하는 同時에 朝鮮民曆도 廢止해야 될것이니 그 重大理由는 그것이 莫大한 迷信助長에 기여하기때문이다。朝鮮民曆은「移徙、裁衣、動土、上樑、開市、納財에 宜함」이라는式의 不可解의 文句를 滿載하야 民家의 迷信을 助長하며、活動을 阻止하며、商去來의 沮滯를 誘致하고 잇는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迷信根絶의 意味에서도 朝鮮民曆의 廢止를 主張하는것이다。

蘇聯、東西兩國境에 大軍을繼續集結
日獨의脅威喧傳하면서

【哈爾濱發電】最近 蘇聯當局은 日獨의 脅威를 喧傳하면서 모든資力으로써 이에 備하고잇다는데 極東에잇서서는 周知하는바와가티 强當한 軍備集結을 繼續하고잇는바 英字紙의 所報에依하면 西部國境의强化를 爲하야 우크라이나地方에 綴續軍備集結을 行하고잇는바 國境線에 沿하야 駐屯하는 師團의 數는 이미 十師團으로부터 十八師團으로 增加되엿다。其外 우크라이나 及 白러시아 國境線에 더욱 十師團이 集結되여잇는데 赤衛軍士官은 全部獨逸語를 工夫하고잇다。

海軍當局에서 實行豫算編成

【東京電話電通】議會가 解散되여 旣定計畫을 遂行할 明年度 非常時大豫算이 不成立이 되엇스므로 海軍當局은 即時 總動員하야 實行豫算을 編成케하야 今年四月以後에 着手할 新艦船建造航空隊整備費와 同維持費艦船改裝 艦船維持費 水陸整備等의 旣定計畫遂行에 支障이 업기를 期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不成立된明年度豫算 五億五千萬圓中 今年度比增二千二百萬圓은 總選擧後 如何한 內閣이 出現하더라도 이것을 追加豫算으로 承認시켜서 四月下旬에 열릴 特別議會의 協贊을 期하기로 되엇다

解散은되엿스나 內閣前途不安
民政側에도改造論惹起形勢 貴院側도引退를希望

【東京電話同盟】總選擧後의 政局이 如何히 展開될는지에 關해서는 政界財界兩方面으로부터 여러가지 意味에서 興味를 가지고 보고잇는데 政界各方面의 觀測을 綜合하면 大體如左하다

一、總選擧의 結果는 大體 民政黨이 解散直前의 勢力보담 五、六十名을 增加하야 二百名 乃至 이에가까운 數를 獲得할것이다

一、昭和會는 今回의 總選擧의 結果如何에 不拘하고 選擧後에는 最低限度 六十名을 獲得한다고 말하고잇스므로 이는 總選擧後에 政友會가 比較的 多數일 境遇에는 이것을 分解하야 非政友聯盟으로 現狀을 維持하려는 생각인모양이다

一、이리하야 政府는 總選擧後의 特別議會를 어떠케해서라도 突破하려고 하고잇는것은 明白하다

一、그러나 民政黨이 二百名가깝게된 境遇에 從來의 民政黨의 態度로 보아 現在의 黨出身 閣僚比率 三對二에 滿足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特히 政友會 閣僚가 昭和會를 結成치 아니한 以前이면 몰라도 昭和會가 六十名을 獲得하엿다하더라도 三名의 閣僚를 내는것은 不合理하다는 論이 民政黨內에 擡頭하고잇슴으로 改造問題가 惹起될것으로 보지안흐면안될것이다

一、政友會는 今回의 總選擧에 얼마만한 數를 獲得할는지는 別問題로하고 政友會가 特別議會에 臨할 境遇에는 黨으로서 모든 問題를 들고 岡田內閣에 肉迫하기로되어잇슴으로 岡田內閣이 依然히 擧國一致內閣이라고 稱할수는 업게된다

一、또 貴族院方面에서도 岡田 弱體內閣의 引退를 希望하고잇는이가만타

以上의 諸觀測에서 判斷하야 總選擧後의 岡田內閣의 前途는 決코 樂觀을 不許한다

伊軍總攻擊準備
十三人委員會和協斷念

【밀라노二十一日發同盟】伊太利南軍 그라치니將軍麾下의 前線은 最近顯著히 進出을示하는中인데 伊太利朝野는 戰局의將來에關하야 모다 極히 樂觀的見解를 내리고잇는바 가제이다·데라스·데스타스等 에디오피아 諸將의 軍事行動이 不能에陷한結果 從來 伊太利軍主力을 傾注치안호면 안되리라고 보이던 南部戰線軍事要地 하라르 周邊의 伊太利軍의 進出로 方今겨우 一線으로 縮減되어 伊에兩軍의 決戰期인 하라르 高原의 要地 하라르市는 이미指呼內에잇다고 稱하여도 誇稱이 아니다 이리하야 伊太利軍이大擧 에디오피아의 心臟部를衝擊하야 이에致命的 衝擊을加하기에容易한 狀態가되고잇다

【쥬네브二十一日發同盟】十三人委員會는 二十一日午後六時 議長西班牙代表마다리아가氏司會下에 開會하고 伊에紛爭處理問題를 中心으로 巴里試案失敗後의 推移를 討議한結果 現下의 情勢下에서는 和協의 方途가 업는것을 述한 簡單한 報告書를 採擇코 午後七時五分散會하엿다

英先帝御大葬 二十八日執行

【倫敦廿一日發電通】先帝조지五世陛下의 御遺骸는 二十一日最後의 御安息所산드링검離宮으로부터 산드링검村敎會에 近侍人의 손으로 옴겨모시어 同會堂內에 儀禮를 다하야 御安置 二十三日 同會堂御出棺 午後倫敦御着 即時 웨스터민스터大寺院本堂에 옴겨모시어 御大葬當日까지 御安置할터이다 御大葬은 二十八日 윈저宮內의 聖조지禮拜堂에서 執行하기로 되엇다 當日은 웨스터민스터寺院으로부터 倫敦西端의 파딩톤停車場까지의 大葬列은 第一公式의 盛儀를 極하야執行될터이다

日本의脫退와 軍縮會議의前途
國際外交에는實力을要한다 (五)

徐 椿

英米 兩國海軍은 中國門戶의 開放力이다。日本海軍은 中國門戶의 閉鎖力이다。開放主義者가 그開放을 容易케하는데는 相對方의 閉鎖力을 될수잇는限까지 減殺시킬수밧게 업다。이것이英米가 對日優勢海軍을 主張하는 根本理由다。閉鎖主義者가 그閉鎖를 容易케하는데는 開放力을 이길만한 實力이 잇슴을要한다。이것이 日本이 英米와의 同量保有量 굿게 主張하야 讓步치 아니하는 根本的理由다。그러면 決心은 어느便이 더 堅固하냐? 하면 英米보다 日本이 더 堅强하다。何故오하면 英米의 必要는「더 繁榮하느냐? 안느냐?」하는 程度인데 對하야 日本의 必要는 實로 經濟、國防兩方面에 亘하야서의 死活問題로 日本은 생각하고 잇기때문이다。日本의 이事情을 暫間、뭇소리니의 말을 模倣하야 表해본다면

「日本은 亞細亞大陸側으로 擴張하거나 그러치 아는면 爆發할수밧게 업다。」

라고 할것이라。

그러면 英米의 極東門戶開放主義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이에對한 日本의 對抗的決心은 왜 最近에 와서 그러케 堅强해 젓느냐? 하는 疑問이 생길것이나、이것은 그러할 理由가 잇다。그理由는 첫재 日本의 國力膨脹이오、둘재 世界環境의 變遷이다。마음 가라서야 밟서 幾十年、幾百年前부터 極東몬로主義를 遂行할 생각이 잇섯슬 것이나、實力의 背景이 업는 主義의 保障은 他國으로보면 지나가는 바람소리가티 들릴뿐만 아니라、까딱 잘못 하다가는 되치기를 當하는 實害가 도라오는수도 잇다。이事情을 暫間、日本의 녯날 外務大臣陸奧宗光氏의 말을 비러 表해 본다면

『兵力의 後援이 업는 外交는 如何한 正理에 根據하엿슬지라도 그終局에 잇서서는 失敗를 不免하는수가 잇다。』

라고 하는것이다。이것은 日本이 日淸戰爭의 結果로 中國으로부터遼東半島의 割讓을 밧엇스나 獨佛露三國干涉에 依하야 할수업시 還付하면서 當時의外務大臣陸奧氏가 發한 嘆聲이다。

그러나 只今에 와서는 日本은 極東의 安定勢力으로서 極東몬로主義를 遂行할 自信이 생기엇다。

다음은 世界環境의 變遷이데 이에 對하야 簡略한 說明을 부처본다면 一九二四年의 米國移民法案의 實施와、그것의 排米諸國에 對한 影響에 移하야 日本은 그過剩人口를 外國으로 보낼 希望이 아조 끈허지고말엇다。또 一九三二年 오타와會議의結果、英帝國經濟뿌락의 結成과 또한 그것의 各國에 對한 影響에依하야 日本은 過剩生產을 國外에 向하야 處分하기가 甚히 困難하게 되엿다。此를 反面으로 말하면 移民에 對해서는 自由移民이 可能하거니하고 미더왓스나、只今은 그希望이 끈허지고、또한 從前의 自由貿易時代에 잇서서는 商品輸出에 對한 困難은 업슬것으로 알엇든것이 自由貿易主義의 本尊이던 英國의 方向轉換으로 因하야 商品輸出難을 當하고 보니、이때 日本이 생각할것은 地理的으로 隣接關係에 잇고、또한 比較的抵抗力이 적은 亞細亞方面으로 뻐드러는 一路가게 엇물것이다。故로 實力膨脹、環境變遷의 두가지는 日本이 極東몬로主義를 特히 最近에 와서 堅持하게 된 根本原因으로 볼것이다。

그러고、英米와 同量의海軍備를 가지겟다는 日本의 主張이 英米의 容許하는바가 되지못하면 그러한 軍縮會議로부터 脫退할수밧게 업다는 구든 決心의 表現은 어제 오늘에 비로소가 아니라、적어도 三四年前부터 보인것이다。이것을 길게 追窮하면 一九三一年九月十八日、滿洲事變이 이러나든 當時까지 溯及할수가 잇스나 設使、그때부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一九三三年 三月二十七日、國際聯盟으로부터 脫退할때에는 발서 그생각이 잇든、때며、또 一九三四年 四月十七日의 天羽聲明(極東몬로主義의 表明)發表時는 발서 그생각이 구든때며、同年 十二月 二十九日의 華府條約廢棄는 발서 그堅强한 決心의 結晶이엇든것이다。그러고、同年末、倫敦豫備會議에 잇서서와 日本의 意思表明은 발서 決心强化에 關한 問題가 아니라、그 決心을 列國、特히 英米에 向하야 認識식히기 爲한 意味이엇다。(續)

◇時事漫畫=開幕의第一風景

방패가弱하니! 나올것은 秘藏刀 ……金 華……

海軍省、軍艦夕張의 汕頭廻航을電命
領事館警察署員殺害事件에關聯 在留日本人保護次

【東京電話電通】海軍省發表=及川第三艦隊司令長官으로부터 左와如한 發電이잇섯다

汕頭領事館警察署員田進殺害事件에 關하야 在留 日本人을保護키 爲하야 廈門在泊中인 軍艦夕張에 對하야 二十二日午前零時二十分直時 汕頭에廻航하라는旨를 電命하엿다

許氏二月上旬赴任

【南京二十一日發同盟】駐日大使로 內定되엿든 僑務委員會委員長許世英氏는 近近 行政院會議에서 決定하야 二月上旬 東京에 赴任할터이다

日本內地米實收
前年에比해선一割八厘增收 比前五個年平均五分九厘減
五千七百四十五萬石

【東京電話電通】農林省發表 昭和十年米收穫高는 五千七百四十五萬六千九百七十六石으로 此를 前年收穫高에 比하면 五百六十一萬六千七百九十四石(一割八厘)이 增加되엿고 前五個年平均收穫高에 比하면 三百五十七萬三千六十三石(五分九厘)이 減少되엿다 그리고 其外耕作面積은 三百二十萬四千百五町二反으로 全國平均一反步收穫高는 一石七斗九升三合에 該當하고 大蓋今年의 稻作은 苗의成育이 大槪로 良好하엿스나 移植後七月中旬에 降雨가 低溫이 持續하엿기때문에 成育이 遲延되엿고 同月下旬에 이르러 高溫이 多少잇서 成育이 回復되엿다 그後八月中九州四國地方等은 氣溫日照가 順調로웟스나 東北 關東 地方等은 大槪로低溫寡照이엇고 더욱 九月에드러 一般으로 霖雨天이 만흐엿기때문에 開花結實에 影響이 만하섯다 그리고 九州四國關西及 東北의 一部地方에잇서서 風水害를 蒙한곳이잇서서 第一回豫想은 六千五十六萬四千六百三十石이엇다 그러나 其後에도 大槪로 氣溫이나 天候順調를 缺하엿기 때문에 稔熟이 顯著히 阻害되엿고 또 諸地方에 虫害를 蒙한곳이잇섯다 九月下旬及 十月下旬에 잇서서 風水害에 依하야 十一月末日現在에잇서서 第二回豫想은 第一回豫想에比하야 三百五十萬四千九百石(五分八厘)이 減少되엿스나 其後天候도大槪로 順調로 經過되여 實收高에잇서서는 二回豫想에比하야 三十九萬七千二百四十六石(七厘)의增加를示하게 되엿다

農林省第二次最終發表

【東京電話電通】第三次日本內地米收穫高公表 靑森縣外十一縣의分은 左와如하다 (單位石、△印은減 他는增)

	收穫高	比前五個年平均
靑森	五三六、五九三	△四六六、〇九九
福岡	一、四四六、八四六	△三四七、一一〇
栃木	一、二六八、四二八	△三二六、〇〇八
新潟	三、七九三、六〇五	三二二、九六五
石川	一、二四三、七三八	一三四、六七〇
山梨	三五五、〇四八	△六七、三八三
滋賀	一、四三一、五九四	△三四、九〇四
島根	九七二、五七九	△八六、六六六
廣島	一、三四九、二七八	△五〇、九七二
山口	一、三五〇、七一四	△一三〇、三六九
長崎	六〇〇、〇四九	△五、一九六
大分	一、一五五、一六九	△四九、五一三
計	一五、五〇五、六四二	△一、〇一六、五八五
前回公表한 三十五道府縣分	四一、九五一、三三五	△二、五五六、四七八
合計	五七、四五六、九七七	△三、五七三、〇六三

本米穀年度 需給推算
約百萬石持越豫想

【東京電話電通】昭和十年産米實收高는 二十二日五千七百四十五萬六千石으로 發表되엿는데 第二回豫想收穫高에 比하야 約四十萬石이 增加되엿다 此를基礎로 本米穀年度의 需給推算을 行하면 左와如하다

▲需給推算 (單位千石)

供給	前年度로부터 繰越高	九、九四〇
	實收高	五七、四五七
	移入見込 朝鮮으로부터	九、〇〇〇
	臺灣으로부터	五、〇〇〇
	計	八一、三九七
需要	消費豫想高	七一、〇〇〇
	輸移出豫想	四六〇
	計	七一、四六〇
差減端境期持越高		九、九三七

로 約 百萬石에 가가운 持越이 豫想되여 잇는바 政府所有米를 六百萬石으로보면 民間米는四百萬石이 되므로 今年度의 米穀需給關係는 자못圓滑치못할수밧게업슬것이다

臺灣米第二期實收 二十一萬餘石增收

【臺北電話同盟】臺灣總督府發表 第二期米實收高는 四百七十九萬三千九百五十九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二十一萬六千百十九石이 增加되엿고 그리고耕作面積은 三十萬三千八百六十二甲十四이다

宇垣總督
時局縱橫談

宇垣總督은 二十二日 記者團과 會見하고 時事問題에 關하야 左와 如히 말하엿다

昨二十一日 英皇帝 조지五世陛下께서 崩御하신데 對하여는 痛悼하여 마지안는바이다 數日來로 御不例라고 拜承하엿스나 큰 일은 업스리라고 생각하면서 御快癒를 祈願하고 잇든바 突然 崩御의 報를 接하고 英國朝野를 擧한 悲哀는 京察하고도 남음이잇다 茲에 二千餘萬의 民衆과 함께 삼가 敬弔의 意를 奉表하는바이다

▲客年末以來 解散必至라고 世間에서 論議되든 衆議院도 마츰내 갈때까지가고 말엇다。다음 總選擧에서 깨끗이 過去를 淸算하고 各方面에서 期待하고잇는 明朗한 擧國一致의 새로운 政界가 現出하기를 바란다 또 반드시 이러케 만들지안호면 안되리라고한다 朝鮮의 十一年度 新規事業은 緊急必要한것만을 提出하엿슴으로 早晩間 總選擧後의議會에서 承認을 엇게될터임으로 半島의 進展에는 그리큰 支障은 업스리라고 思惟한다 政務總監은 압흐로더 욱 二、三週間滯在하면서 關係方面과 折衝할 豫定 이다

昭和會結成
聲明書를發表

【東京電話電通】昭和會는 二十一日午後六時부터、日本橋의 末廣에서 總會를 開催하고 選擧對策에 關하야 意見交換을 遂하고 左의 聲明을 發表하엿다

‖聲明書‖

思惟컨대 內外의 時局은 자못 多端하야 擧國一致를 必要로함이 무릇 今日보담 急한적이업섯다 이때를 當하야 政黨은 區區末節의 論議를 排하고 모름즉이 國政의 大本에 基하고 國策의 大道에 立하야 協心戮力 時艱克服과 國運의 飛躍進展에 精進할것이다 그런데 政黨一部의 人士는 舊態依然하야 부질업시 感情에 捕捉되어 敢히 事端을 構하야 國政의 紛糾되옴을 不辭한다 적어도 誠心으로 國家를 愛하고 政黨을 愛하는 者는 斷然함께할수업는바이다 吾等同志가 相謀하야茲에 昭和會를 結成한다 그뜻하는바는 內外의 難局打開를 爲하야 益益 擧國一致를 强化함에잇다 그리고 政黨의 積弊를 刷新하고 民心을 翕合하야서 憲政政治를 그 本然에 復歸케하려는데 잇다 吾等의 主義主張에 對해서는 伊藤公의 政友立黨의 宣言綱領으로 說盡되어잇는터로 지금 新言을 要치안는바이다

立候補者屆出黨派別

【東京電話同盟】二十二日午後六時半現在

政友會	二七
民政黨	三六
昭和會	三
國同	二
社大黨	八
其他無產黨	二
中立	一〇
合計	八八
이中에는 新	五〇
前	二九
元	九

選擧期日公布
=來月二十日로=

【東京電話電通】總選擧期日에關하여는 旣報한바와가티 岡田首相으로부터 上奏御裁可를거처 來二月二十日에 擧行할 旨를 今二十二日官報로서 公布하엿다

辭令

(咸北城津)郡守 玉田 之繁
任府尹(五等) 命元山府在勤
(京城府)京畿道屬 遠山 秀道
任郡守(七等) 命京畿道楊州郡在勤
(京畿楊州)郡守 宋 文華
命京畿道水原郡在勤
(京畿水原)郡守 大河內 嚴
命咸鏡北道城津郡在勤
(元山)府尹 後藤 積
依願免本官
平安北道警部兼稅關監視 渡邊 孝三
任道警視(七等) 命平安北道在勤

夕刊後市況 廿二日

◆大阪短期 氣配◆

大新	九一六〇	(不變)
鐘新	一四九三〇	(一〇高)
日產	七二五〇	(二〇高)
東新	一五七七〇	(一〇高)

◆鎭南浦期米◆ 後場 五節 元·八七 六節 元·八八

◆橫濱 生糸 後引◆ 當限八一六〇〇 先限七九二〇〇

◆高井 人絹 後引◆ 當限 五四九〇 先限 五四一〇

朝鮮式客室增加
別館內舊行宮溫突客室增築 別館內煖房設備完成 本館娛樂設備增加 料金低廉、設備完全 朝鮮古來
靈水 溫陽溫泉 神井館

SPECTACLES
眼鏡無料
東亞醫院眼鏡部
專門醫師 責任診察

생글 (生顆)
滋養豐富料理簡單
地方販賣店募集
海蔘·貝柱·乾鰒 元山 三水商店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最高의會社意義잇는大事業邁進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第一 第二
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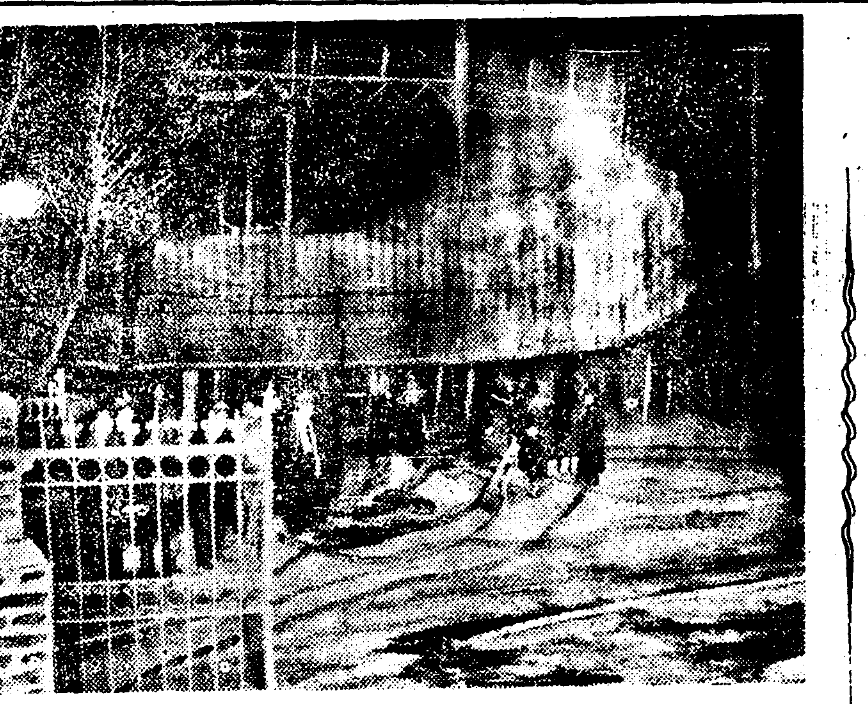
金銀特別高價買
吉武金銀店

强하고利한 富士自轉車
昭和十一年은 튼튼코輕한 三年五年의 耐久力잇는 富士號使用 이라고直決
富士號의 富士타이야는 當社自身의고무工場에서 무럽고안달코찌여지지안토록 鬼式三重補强法으로特製한品이다고 무工場을世界中에當社가唯一한社다。
製造 大日本自轉車會社
發賣 株式會社 日米商店
京城支店 黃金町一
東京 名古屋 大阪 福岡 台北

火災慰問謝禮
弊社龍山瓦斯製造所發火의 時는 大端한 念慮를 끼처 實로 面目이 업습니다 多幸히 諸位의 盡力에 依하야 大事에 至치안코 鎭火된바를 깁히 謝禮하나이다
此際는 混雜中임으로 慰問하여주신분에게 一一히 人事를 할것이오나 紙上으로 謝禮합니다
그리고 瓦斯供給에 對하야는 何等支障업슴을 아울러 通知합니다
昭和十一年一月二十二日
京城電氣株式會社

文化義勇隊總進軍
十萬部敎材旣盡
朝鮮內는 勿論滿洲日本內地까지席捲
本社第五回文字普及運動

≪아는것이힘!≫ ≪배워야산다!≫는 표어를 들고 본사에서 문맹퇴치운동(文盲退治運動)을 꾸준히 계속한지 작년까지 네번째에 매년 장족적발전을 하야 수십만문맹군을 퇴치하야 오것은 자타가 다가티 인정하는바어니와 지난년말을 긔하야 제오차문자보급운동(第五次文字普及運動)을 이르킴에 잇서서는 종래의방법을 박구어 희생생도들의 동원을 대신하야 우리가 들고나서는 표어에 가장 리해가 만흔 수십만 본보독자의 협력을 구하야 시절도 농한긔(農閑期)를틈타 우선 교재십만부를 배부하기로 하엿든바 사고(社告)가나자마자 붓으로 경원(慶源)상수갑산(三水甲山)남으로 제주도(濟州島)에이르기까지 전조선내의 방방곡곡은물론 동경(東京)대판(大阪)경도(京都)부터남북만주(南北滿洲)까지에이르기까지 조선민족 살고잇는곳이면 해내해외를 물론하고 날로드러미는 교재 청구에 계획발표이래 불과이십일을 지난오늘에는 한편으로 쇄도하는 청구서를 산가티 싸아노코 예정부수인 십만부 전부를 배부하고 마랏다 이리하야 독자한분이 한분의문맹동포를 퇴치하야 이현상대로 나간다면 한회가 거듭될때마다 수십만의 눈뜬이를 것이다 이사업의결과로 우리사회에 크다란 광명이 나타날것으로 압흐로 더욱더욱 긔대가커질뿐이다



元町瓦斯탕크火災
一時危急、大混亂
貯藏瓦斯十九萬立方米燃燒
市內消防員總動員

이십이일 오후세시삼십오분쯤 되여 시내 한강통(漢江通)집오번지에잇는 경전(京電)『까스·탕크』에서 갑작이 불이 이러나서 발열시 오십오분까지 그『탕크』속에 저장한『까스』 이십오만 립방(立方)『미돌』중에서 십구만 립방『미돌』을 모다태워 발산시킨후 절로 불이 꺼젓다。 원인은 경전철공 함덕복(咸鎭福)(二五)과 정덕만(鄭德萬)(二五)두명이 그『탕크』동북쪽맨 웃쪽철판이 썩엇기때문에 전기『도릴』을가지고 『탕크』철판쪽에 구녕을뚤타가 그를하여『도릴』로부터불이나서 박그로 뿜어나오며 이러난것이다。

그리하여 네시간반 가량이나 계속하여 타는이 무서운『탕크』의 불이 이러남과함께 소관룡산서(龍山署)에서는 송강(松岡) 서장이하 전서원을 비상소집한 것은 물론 좌백(佐伯)경찰부장 외 시내각서장과 서원들등원아래 약오백명의 경관 소방조원 소년단들이 총동원하여 엄중한경계를 하는한편 만일의위험을 막기위하여 원정(元町)이정목룡산서 압부터사정목 전차종점까지 교통을 모다 차단하엿다。

손해는『까스』의 본값만록백원으로 만약배급(配給)문돔으로환산한다면 실로일만원가량이 나된다고한다。

그『탕크』잇는현장부근에는철도공장가튼 큰건물들이 잇슬뿐안이라 약삼사백『미돌』가량되는지점에는중요한 상점건물이며 인가들이 즐비하게잇서서 깟닥햇드면 큰일에 이를번햇다한다。

(사진은 화재현장과 경계하는 광경)

金鍾範氏被釋

작년세밀에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는 문서를『타입우라이트』에 찍어서 조선총독부 고관과가 시내 강은행회사중역들에게 우편으로 배부 하엿다는 사실로 시내 본정경찰서(本町署)에 붓잡혀서 취조를 밧다가 얼마전에 출판법위반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어가서 주견(酒見)차석검사에게 취조를밧든 삼민(三民)김종범(金鍾範)씨는벌금형의처분을받고 수일전에 석방되엿다한다

그리하야 종전대로 선만실업공론(鮮滿實業公論)이라는 잡지를경영하고 잇다한다

鎭南丸修理後 救助次再出航

대동강(大同江)어구에서 조난된 배를 구조하다 고장이생긴진남포(鎭南浦)세관 소속쇄빙선 진남환은 완전히 수리가끗나 이십이일 오전여덜시 다시구원차로 진남포항을떠낫다

第二回 全朝鮮女子氷上大會

日時場所 一月廿五日(土)午後一時부터漢江링크에서
〔▲種目=一、二百五十米、五百米、千米、千五百米 ▲申請處=京城府外新村梨花保育學校內 徐恩淑氏에게로 ▲參加金=不要〕
申請今日限

主催 朝鮮女子體育奬勵會 後援 朝鮮體育會、朝鮮日報社

在阪同胞社會
火災民에溫情
救助品等多數遝至

【大阪】지난십칠일에 시내포강정(浦江町)에잇는 동포의 부락에 화재가 이러나서 삽시간에 전부라이 전소되고 가장집물도 전소되야 삼십사호 이백칠십여명의 가족이 거리에서 방황하게되엿다는것은 본보에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대판에 잇는 동포사회에서는 판신소비조합(阪神消組) 대동소비조합(大同消組)조선기독교 북구교회(北區敎會)외 여러단체들은 널니구제금품을 모집한다는바 지난 이십일까지의 모인금품은 현금이 이백오십오원삼십오전이며 백미(白米)가사십이두 간장이 칠두 정종이구승 붓어가 여섯괘외에 의복이 오십사건이나 되며 지금도 의연금품이 답지한다는바 특히 한약국하는 류창선(柳昌善)씨는이재동포중 병으로신음하는 환자를위하야 한약오백첩을 기증하엿다하며 금번에 화재가 이러난 부락은 종래부터 지주인 판신전철회사(阪神電鐵會社)와의 사이에 대지철퇴문제로 오래동안 계쟁이 잇서나오든중 률행히 금번에 화재로동부락이 전소되것을 기회로하야지주측에서는 그토지에 다시건축을 못하게하기 위하야 그주위에 목책을 세우는 동시에 장정십여명으로 하여금 엄중히파수를 뵈이고잇고 경찰당국에서는 건축법에의한 건축은 별문제이나 빠락식건축은 불허가한다하야 리재동포와 지주사이에 계쟁은확대되고 잇슴으로 이문제는 어떠케 락착될지 일반의주목을 끄으는중이라 하는바 특히 일긔가 혹한하야 그들의사러갈길이 념려된다한다

大阪朝鮮人災民
徹退問題로亂鬪

【大阪支局電話】이십이일 오전일곱시쯤되여 대판시동성구포강상통(大阪市東成區浦江上通) 삼정목 판신(阪神)전차소유의빈터에서 그곳리인 소림(小林藤藏)의 인부구십이명과 지난십칠일에 그빈터의 조선인부락삼십구호가 전소되여 피난한팔십명의 조선인이 손에『스콥』과몽둥이를들고 서로대란투를 연출하야 리귀호(李基浩)(二七)외네명은 얼골등에 전치일주간의 부상을 입엇다 이소동을 들은복도서(福島署)에서는 즉시 전서원을 현장에 급행식혀 총검속을하고 그원인을 조사한결과전긔소림은 그부락의 불탄것을기회로 조선인이 점거치못하도록당을차라고 한것으로부터 발단된것이라한다

仁川近海서도
流氷遭難頻頻
江華島間交通至難

【江華支局電話】작금의모진추위에 인천(仁川) 근해에는 류빙(流氷)때문에 교통이 두절되여 강화도(江華島)의 선로도 끈허저서 우편물도 강화읍만에 배달되는 상태인바 지난십칠일에 인천(仁川)을 떠난 전매국(專賣局)담배 배급선 장수환(長壽丸)이 어유정(魚遊井島) 부근에서 류빙에 조난하엿는데 체신국에서는 이십칠일 비행긔로 구조품을 배급하엿다 한다

또 강화도 사긔리(沙器里)의 가미니실은 범선(帆船) 두척이 동검도(東檢島)에서 역시 류빙에 조난하엿다고한다

希望者는二重國籍
滿洲國歸化는不許
土地商租法과 朝鮮人敎育規例는
一括的歸化不許前提로制定

총독부에서는 재만조선인을 일괄적으로 만주국의 국적을 엇게하야 귀화식힐 방침이라고 일부에서 전한바 잇섯스나 이것은 전연 무근한일에 불과하야 총독부에서는 절대로 일괄적귀화를 용인치 안는다한다 만주국이 건설된이후에 일부에서는 만주에잇는 조선인이나 일본내지인을 모조리 만주국으로 귀화식히자는 주장이 잇섯스나 그후 이런주장을 하는사람은 업서지고 중앙당국이나 관동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야는 전연고려할 여지가 업다하야 총독부에서는 조선에도 국적법을 실시하야 재만조선인중 에서 만일 만주국에 귀화를 히망하는자가 잇스면 이것은 용인은 하되 조선에도 국적을 갓게하야 이중국적으로하야 귀화식히고 조선측으로서의 재만조선인 시설 또는 취체보호에 대하야는 현상유지 또는확충을할터이라한다

一括的化는不許
福島事務官談

국적재만조선인 국적문제에대하야 총독부외사과 복도(福島)사무관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재만조선인의 국적은 그대로 두나 희망자는 이중국적으로 만주국에 귀화할수잇다 만일 일괄적으로 귀화식힌다면 교육문제니 토지소유문제니 생길리치가업다 또전부 귀화식히면 여러가지 곤난한 문제가만흘것이다

그리고 이문제에대하야는 관동군에서도 총독부와 의향이 가틈으로 절대로 전부귀화를 보힌다는일은업다』

大阪府會에 瀆職事件發生

【大阪電話】대판지방법원검사국과 밋대판부형사과 지능범계 에서이십이일 새벽 지세(地稅)의옥으로 인해서생긴 대판부회의 독직사건에 철저하게 메스를 휘둘르기로되여 형사대의 일행은 그날아츰 여섯시 선장서(船場署)와 협력하여 부의미전묘삼랑(米田卯三郞)(四七)과 가든부의 모곡촌삼랑(毛谷村三郞)(四二)과 량씨를 데려다가 관람세(觀覽稅)폐지에 암약하여 송죽(松竹)흥행에서 다액의 금품을 수수한사실에대해서 취조를 바덧는데 이미수용된 부의가벌서십칠명의다수라한다

조반전

▲표범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고 큰거리로 나가다가 산양개에게 증생으로 보이여 봉변을 톡톡히한 중년녀자한분▲이십일 오후세시나희약이십칠팔세되여보이는 어떤부자ㅅ집아씨가표범가죽외투를 떨더리고『실크』양말에『모던』방한화에성장을차리고▲광화문네거리로부터종로를 향하야 조용거름을 치고갈때▲추위때문에 얼골만백곰히 내노코 표범가죽외투를 입은탓인지 ▲하로강아지범무서워 안는격으로 그곳을 지나가든 산양개한머리 ▲이『모던』아씨를 증생으로보앗든지 댓듬에 무려뜻고 기어올르든 바람에 ▲별안간에 봉변을당한 성장한 이 아씨는 얼낌에 튀어들어간다는 곳이 ▲큰길엽헤잇는 ○○리발관이엿다 ▲리발관에잇든 십여명의 남자대중 별안간의 미인방문에 대경실색 ▲미인뒤에 따러드는『셰퍼드』를보고는 박장대소 ▲섯불리 표범가죽외투자랑을말일

放水는今日부터
每秒二百五十立米增加
防水費는百萬圓經費所要
危境에處한長津水電問題

【咸興支局電話】과보=장진강수전회사(長津江水電會社)의 제일호발전소로부터 흘러나리는방수(放水)로 인하야 흑림강(黑林江)이 범람하야 부근일대가 백여만평이나 침수되엿다함은 루보하엿거니와 오로변전소(五老變電所)로부터의 래전에의하면 이십일일밤이나 이십이일 오전중에는 종래에 흐르든 매초오백립방메돌(每秒五百立方米突)방수가 매초이백오십립방메돌이나 증가될터임으로 흑림강연안일대는더욱 불안상태에빠저잇다 이에대한 함북도당국로과의 대책을드르면 방수책(防水策)은경비가약 백만원이나 요할모양으로 회사측과 방금대책을강구중이라한다

軍用飛行機三臺
群山에不時着陸

이십이일오후 여덜시십분 충남경찰부로부터 경긔도경찰부에 들어온 전화를보면 긔부(岐阜)비행련대소속 전투긔 세대는울산(蔚山)으로부터 경성을향하야 비행하든도중 길을잘못들어 방황하다가 이십이일오후 일곱시 이십분 세대중 고원(高原)중위가 조종하는 비행긔한대는 충남서천군 장항(舒川郡長項)비행장에 불시착륙하엿는데 다행히 비행긔와 탑승자는 아모손상이 업섯스며 다른두대는 군산경마장(群山競馬場)에 불시착륙한모양이나 자세한것은 아직알수업다고한다

女商에曙光
韓亮鎬氏의特志
今年中에校舍도新築

오래동안 경영난에 빠저잇든 시내 견지동(堅志洞) 여자상업학교(女商)는 금번 그동안의 만흔 파란곡절을 청산하고 계동(桂洞)일백사십륙번지부호한량호(韓亮鎬)(六五)씨가 십만원을내기로확정되엿다는 기쁜소식이잇다 벌서 전경영자 신천교(申天敎)와의 사이에는 인계와 수속이 끗낫다는데 갱생여상의 교운을 걸머지고 일할 새교장은 유전(劉銓)씨라고한다。 금년중으로 재단을 완성한후 교사도 신축하리라한다。

(사진 위는 한씨 아래는 여상)

運動界

全日本氷上
崔君二着
五千米레ー스에

【日光電話東通】第七回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第一日은 二十二日午前九時부터日光細尾링크에서 열린바 昨報以後의 戰績은다음과가트며 五千米에도 滿洲選手에게 首位를빼앗겻다

▲訂正=女子五百米競技에一着渡邊孃(滿洲五五秒四)이기에訂正함

◇男子五千米
▲1安達(滿洲)九分五秒四 ▲2崔龍振(明大)九分二一秒一 ▲3李仁源(光成)九分二三秒六 ▲6安重熙(明大) ▲7張日弘(明大)

◇第一日得點順位
【日光電話東通】氷上大會第一日의 結果는 安達和男君(滿洲)이 得點一〇一、七四로 首位를 占하고 崔龍振、李仁源君이 二三位에 處하야잇다 二十三日은 千五百米의 結果를보아 第十四位까지를 最後一萬米에 出場시키기로되엿는데 第一日의得點은 다음과갓다

1、安達和男(滿洲)一〇一、七四
2、崔龍振(明大)一〇三、五一
3、李仁源(朝鮮)一〇四、三六
4、安重熙(明大)一〇四、九一
5、木谷淸(滿洲)一〇四、九四
6、三代正勝(滿洲)一〇五、六八
7、張日弘(明大)一〇五、五〇
8、金永河(明大)一〇六、三〇
9、朴潤哲(滿)10、許景日(明)

好成績남기고 柳、孫兩君歸京

鎌倉에서合宿中이든 올림픽陸上競技候補選手의 柳長春 孫基禎兩君은 그間所定의練習을 마치고 二十二日午後三時二十分特急列車로 歸京하엿는데 孫君은 十九日午後零時半부터 鎌倉師範校庭에서 열린最後의 記錄會에서 마라손에 好成績을남기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柳君亦是 이날 二千米레ー스에서 日本中長距離界驍將인 靑木 村社 田中等과 對戰하야 五分十九秒二로靑木과 同타임으로 一着한바 孫君과함께 그活躍이크게期待된다

피거스케ー트會
明治町링크에서

京城피거스케ー트會主催의 피거스케ー트大會는 來二十六日午前九時부터 明治町스케ー트링크에서 열릴터인데 申請場所는明治町스케ー트場內에잇는 京城피거스케ー트會라하며 參加料는五十錢인바種目及課題는다음과갓다

◇스쿨피규어=A級서ー클1、2、3、4、쵀인지5A B級서ー클1、3、4、쵀인지스리ー26A、뿌라켓트18A 카운타22A
◇푸리피거=A級B級모다三分間

올림픽豫選
籠球制覇記(三)
延專主將 廉殷鉉

이날萬君 바람이 불지안헛드면 申光浩君의投射몃個는 確實히奏效하엿슬것이다。그리고 이날舊戰한選手들의 作戰線上에잇서考慮할點이잇섯다면 金致淳君은 풀맛해까지 다닥쳐서 좀 그身長과이 잇흘利用하야 多量의 得點을 짓게하는것이 조앗슬것이다 崔海龍君은 後半戰에서『점프受』面目를 妙投하야 奏功한것이 記憶된다。이께임에서 한가지 遺憾으로 생각되는것은 選手 宋基宇、安台慶兩先輩와 現役選手들이 좀더 一致團合된 練習이 업섯다는것이다。끄트로 李文鎬君이 前田을 善防하엿다는것은 斯界의 花形으로의 貫祿을 보엿다고 할것이다 이러케해서 延專은 三十六對三十點의 스코어로 惜敗하엿다。

◇

同日 午後二時半에는 早大軍과 對戰하게되엿는데 이早大팀은 四年前 朝鮮來征時에 延專과 對戰하야 延專軍에게 一敗를 喫케하엿고 그後 延專의 東京遠征時에는 二十七對二十五로 延專軍에게 辛勝을 주어 一勝一敗의 同勝率을 가지고 잇는好敵手이만큼 이번의 對戰이야말로 勝負를 決할 一大激戰이 잇슬것을 豫想케 하엿다。戰端은 열리어 前半에는 延專軍全員이 關東學院과 接戰한뒤것이라 몸의疲勞도疲勞러니와『까드』李性求氏와 洪文吉君의『췌인지마ー크』의不實로서 十對十一로 早大軍에게『리ー드』를當하는 悲運에面케되엿다。그러나 後半에 드러가自己位置그대로『맨투맨』으로 바꾸어 洪文吉君의 攻擊地帶를넓혀주엇스나 戰機는 여기서 부터다시一變하야 延專軍자못自由스러운 께임을하게되엿는데 이날第一痛快한것은 全日本『피업틤』의『포드』橫山을 張利鎭君이 始終善防하야 早大攻擊第一線을 完全히 封鎖하야버린것이다。그리고 李性求氏의 老鍊한技術은 贊論하는것이 蛇足될가 怯날지경이다。그뿐만아니라 金應鎬君의『골킥』와 對角線氣味잇는『떼쉬』는一種의 活劇를 보는感이잇게하야 痛快하엿다。

◇

早大는 이날 八字『부락플레이』라고하야 『부락플레이』로 前衛三人이 活動하면서 이것은 延專도 經驗는것인데 이것을 初對面하여본『부락플레이』로 困難함이 업섯고 早大軍은 投射를 너무 愼重히取扱하는것이 도리혀 延專軍으로하여금 께임을 더욱 容易히進行케하고 말엇다。早大와 延專의『께입플레이』方式이 同一한點으로보아 外觀上 不愉快한 感情을 주지 안흐려는것만은 事實이다『께임』에서도 早大의 二十七點에 對하야 延專은 三十六點을 어더 遠征 第一戰에도 그곳의 强豪早大軍을 擊破하야버렷다

今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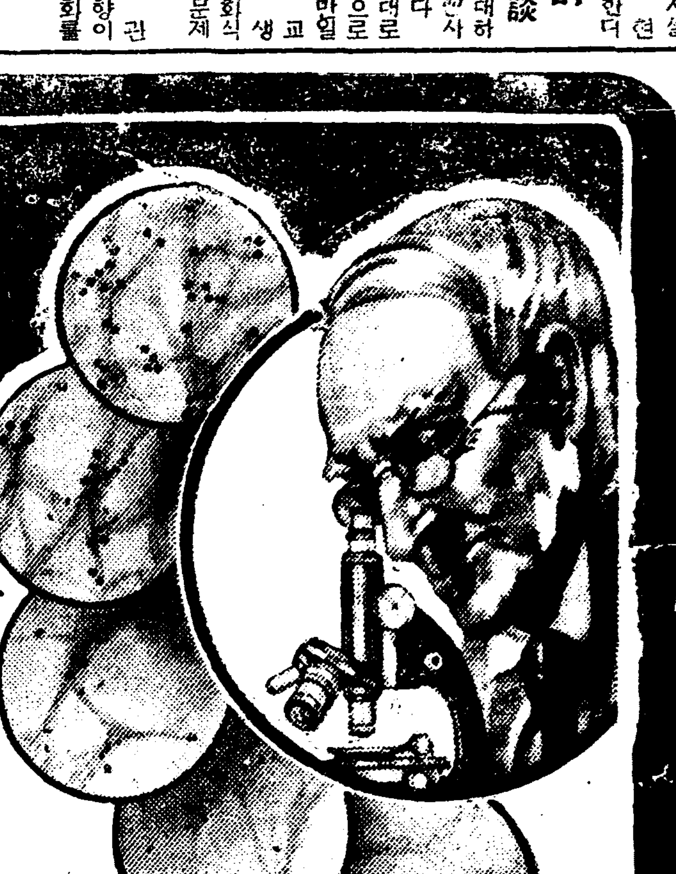
▲氷上=中央高普校內氷上競技大會 午前九時 漢江링크에서

登錄商標

세ー친

사면바리、습진 문질너두면혼자 낫습니다 各藥店에有
三十錢 五十錢 一圓
大阪西久太郞町 竹村製劑所

優秀治淋藥 루ー베리



무서운淋疾의黴菌

最初尿道口로부터 白色粘液과가튼膿汁을分泌하고 얼마곰지내면 黃色尿을 늘 排出한다 이膿中에는 無數한淋菌이存在하야 旺盛한繁殖力을가지고 尿道깁히侵入하야 淋毒性諸症을 併發한다。最初는 尿道炎을일으키여 순수ㅅ것으로수시는것가티알호나 또 尿道로부터毒素의吸收되어서 이原因으로 發熱하고 다시 黴菌은間斷업시 膀胱內에逆하고 淋毒性膀胱炎을 일으키여 其他生殖機能에 여러가지 障害를준다。또 患者의不注意로 淋菌이눈에들어가서 淋毒性膿漏眼에걸린瞬間에는 回復할수업는소경이되는사람이 往往히잇다 이와가티 淋菌은人體에 여러가지 害毒를주는것이다。

藥의撰擇을바로하라

이黴菌은 單味의白檀油球와 발삼球等의內服藥으로는充分히目的을達할수업다 이런藥은 흔이는 四五日을連用하면 발서藥이習慣性이되고는몃날을連用할지라도 容態에變化업시 如斯히白色粘液을分泌한다 特製리베ー루의製造에 苦心硏究한것은 이點에잇다 今日에 리베ー루가 日本內地、滿洲、支那는勿論멀리南洋蘭印、中南米其他의 諸國에輸出激增되는것은 大槪效果의優秀한것을 如實히말하여준것이다。

本劑의特色

一、膀胱膜으로부터 吸收作用이 便히速하야服藥後 尿는 紫色으로 變하야强한 리베ー루臭를내며 나오는것이다 이때는 임의快感을 늣긴다
一、只今까지尿道를侵入하야잇든黴菌은服藥後勢力이衰하고 이殺菌性尿에 씻기여體外로消散된다
一、特製리베ー루의 藥效를 가장 確實히認識할야면 그 尿를採取하야서 專門家에依賴하야 顯微鏡으로菌의檢査를 行하는것이 가장 捷徑으로 服藥後日每日淋菌이 死滅되여가는 現象을볼수가잇

自家尿道洗滌의危險

療法을몰으는患者는 新聞廣告等에 迷惑되야 꼭 손수 消毒하는 尿道洗滌又는 局所療法等을 하여본 그리하야서 淋菌을逆으로 內部에갑피 밀어너서 膀胱가타루를 일으키고 睾丸炎에걸이여서괴로운경우를當한後 大端後悔하는것이 十中八九까지는 다.이것으로 욕을보게되니 斷然謹愼하지안으면 안된다。

注意 到處藥店에 販賣하나 萬一品切時는他藥을求치말고 本舖又는 出張所에直接申込하시면 곳 送藥함 (送料不要)

五日 ¥2.00 七日 ¥3.00 十日 ¥5.00 廿日 ¥10.00

大阪市東區南久太郞町二丁目
發賣元 竹村製劑所
藥劑師 竹村幸次郞
電話船場(二五〇·一五五五番) 振替大阪三六〇番
滿洲奉天住吉町八番地 竹村製劑所出張所 電話(六五四四番)

진실로하늘에서 별을따와!

보음보양 젊어지는약은 가이자ㅣ가 제일이오

가이자ㅣ한제만쓰시면 쇠약하야진몸을 단번에 회복식히고 기운이왕성하야 인생청춘의 모든락을 마음껏 누릴수잇습니다 청춘은 늙지안코 로인은 다시 젊어지는 선약입니다 실제로 약을쓰신분이 별별보약을 다ㅣ먹어보앗스나 세상에 이런신기하고 확실한약은처음이라고 깃붐에 넘치는감사장을 부지기수로 보내십니다
원기업고 양기부족 신기부족 선천허약 신경쇠약 빈혈증과로과색 기운허약한데 보음보양젊어지는데 제일특효입니다

가이자ㅣ효능

- ●빈혈증
- ●신경쇠약
- ●로쇠(老衰)
- ●선천부족、근기상실
- ●과색과로양기부족
- ●불감증、음위(○萎)
- ●병후쇠약
- ●불면증、건망증
- ●조루(早○)
- ●정력증진보음보양

특장

- ◇효력이신속한것
- ◇약효가일시적이 아니고영구적인것
- ◇금기(禁忌)하는음식이업슴으로약을 쓰기편리한것(타약병용무방)
- ◇약은환약

全世界人口 廿億万人이다ㅣ알게 二千万人이分担하면一厘도못되는

별을따와서도廣告안하면모른다

광고로할야면적어도 十年은하여야될것이다

크고도 적은 廣告料(광고료)

◉반가운소식!

세게적신발명

사람의 신체의 원동력이되는 근본원소를 발견하야 가장 합리적으로 동서양에 제일유명한 약의정분만 사용하야 수십년간 고심연구 한결과 먹는약으로 보음 보양하며 로인도 원기가 왕성하야 청년과가치 될수잇는즉 불로초를 발견하엿다 가이자ㅣ(KAIZAR) 가 곳 이것이다 하날에서 실지로 별을 따왓다고 할만합니다

마일 약을이삼일쓰시와 특이성체질(特異性體質)로병에 안맛거나 광고와 틀리는점이 잇거나 마음에안맛거나 현저한특효가업거든 약을 곳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하겟습니다

약가
중중 십원
경중 오원
—◇—
지방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새해문안드립니다

이사진은不減衰說을(불감쇠설)을발표하는 광경이오 몸을근본적으로보하면 백살以上누구든지살수잇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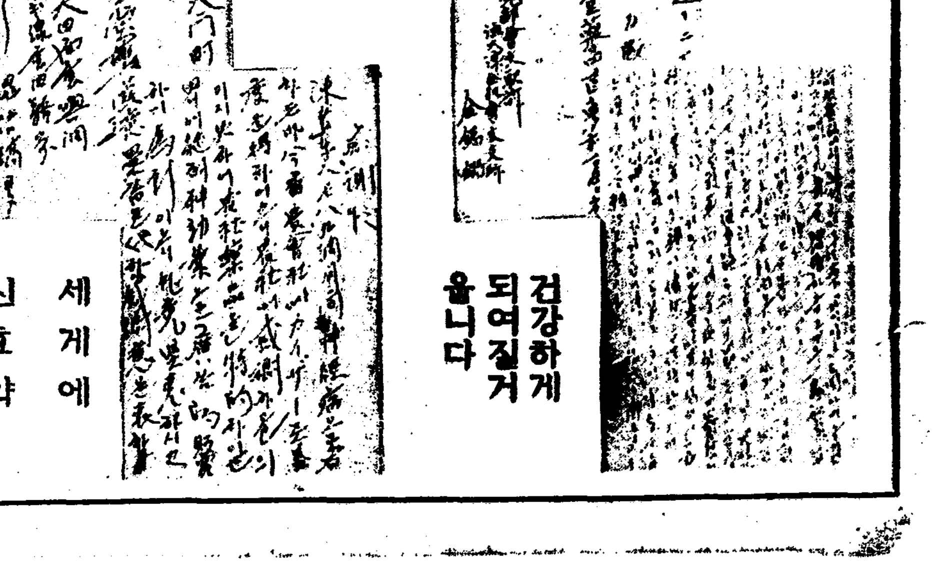
000145.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代表電話光化門三三四・振替京城四九五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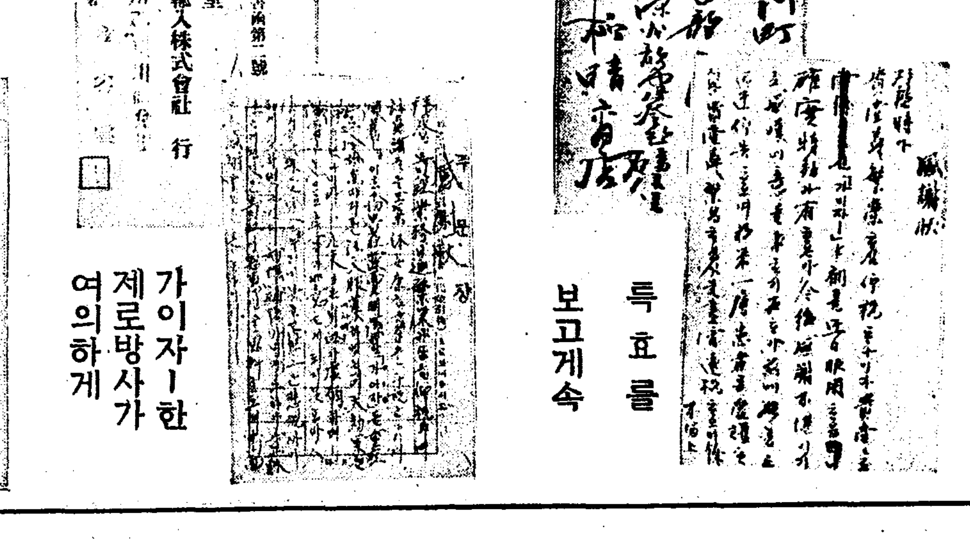
약을실제로써보신분이약효가하도신기하고확실함으로감사하다는편지가답지합니다 다백만가지말보다이감사장이약효를증명합니다



가이자ㅣ덕택으로로친이 건강하게되여질거올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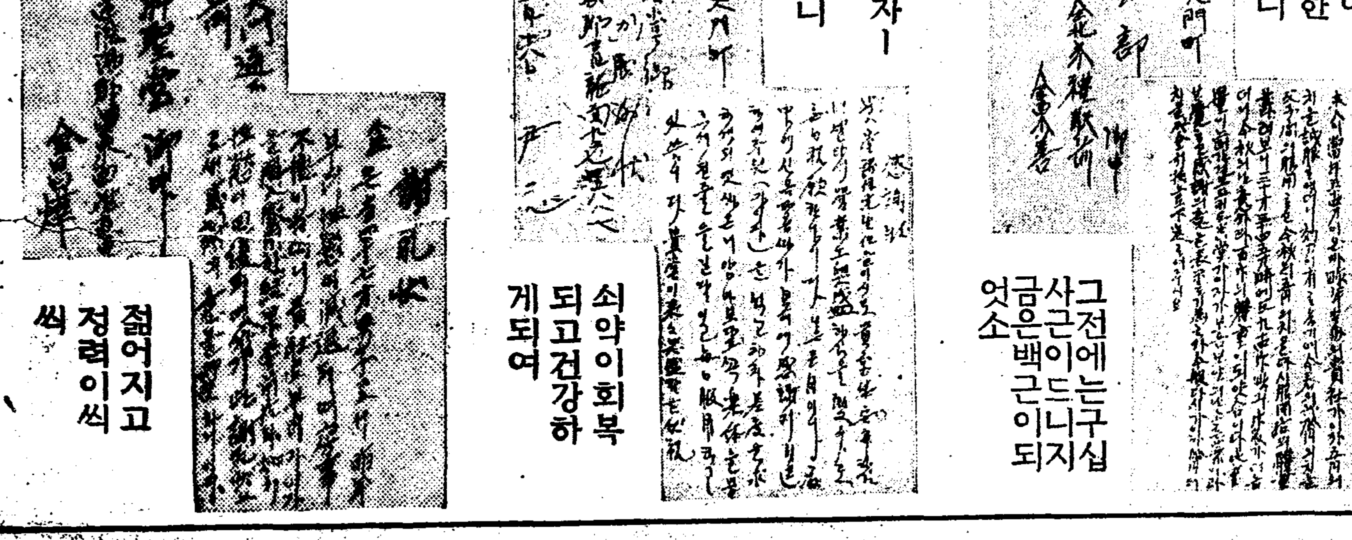
가이자ㅣ로신경병이낫스니 세계에신효약

가이자ㅣ반제에 특효를보고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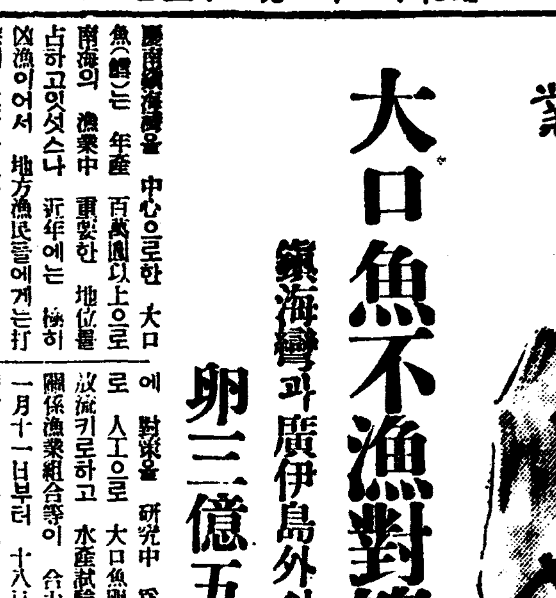
허약하고양기부족하드니 가이자ㅣ한제로방사가여의하게

오십사세에가이자ㅣ한제를썻드니 그전에는구십사근이드니지금은백근이되엇소



병후가이자ㅣ를한제쓰니 쇠약이회복되고건강하게되여

사십칠세로인이삼십세이하 젊어지고정력이씩씩



產業

大口魚不漁對策

鎭海灣과 廣伊島外의 兩個所에 卵三億五千萬粒放流

慶南鎭海灣을 中心으로한 大口魚(鱈)는 年產 百萬圓以上으로 南海의 漁業中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섯스나 近年에는 極히 凶漁이어서 地方漁民들에게는 打擊이 莫大하엿다 今冬 漁期로 보아도 十二月以來 一月十四日까지 灣內、灣外를 合하여 不過七十餘萬尾假量으로 產額으로는 例年보다 高價이라고는하나 겨우 三十萬圓에 不過하엿다 이에 對策을 研究中 爲先試驗으로 人工으로 大口魚卵을 孵化放流키로하고 水產試驗、道廳、關係漁業組合等이 合力하여 去一月十一日부터 十八日까지 鎭海灣、廣伊島外 二個所에 三億五千萬粒을 放流하엿다 이것이 成魚되기까지는 三四年을 要하는데 成績如何는 豫斷키 힘드나 漁民들은 적지안흔 企待를 가지고잇다

東海鰊漁不振 卵採取禁止

蕃殖保護策을講究

【浦項】慶北迎日灣의 漁獲高中에 王座를 占하고잇는 鰊定置漁場은 大正十二年以來로 每年 繼續하는 凶漁로 말미아마 最近에 至하야서는 業者의 頭痛일뿐아니라 鰊王國인 浦項을 中心으로하야 東海岸一帶는 死活問題에 일으게되엿다한다 이에 當局에서는 各方面으로 이에 對한 調査를 한結果 從來 產出된 鰊卵이 肥料 또는 食糧으로 供給된 關係上 漁族保存行爲에 만흔 迫害가되여왓다고 斷定하고 漁業令에 依하야 鰊蕃殖保護에 關한 件이라하고 다시 道에서는 加藤水產技師外二名을 浦項에 出張식혀 鰊卵蕃殖保護에 關한 漁業者座談會를 지난 十六日 午後二時부터 迎日漁業組合樓上에서 開催하야 鰊卵蕃殖保護에 關하야 業者間에 여러가지 意見交換이 잇슨後 同三時半에 閉會하엿다 한다

琺瑯器協議會 紛糾를難免

二月中旬釜山서開催

日本內地와 朝鮮의琺瑯鐵器統制는 舊臘朝鮮側의 形便上 協定會議를 延期中이든바 來二月十七、十八兩日 釜山商議에서 協定會議를 開催키로 決定하얏다 이미 西邦琺瑯鐵器組合은 日本內地의 生產이 百二十三釜 月產二萬一千個임으로 이에準하야 朝鮮內를 十九釜로 認定하고 同率의 制限을 要求하고잇다

그러나 朝鮮으로서는 大體 이 十九釜의 認定自身이 朝鮮內能力과 相異하야 朝鮮內는 이미 三十釜를 突破하고 잇슴을비롯하야 能力의 日本內地와朝鮮의 레벨相違로 相當히 紛糾하리라고보인다 그런데 殖產局에서는 畏子技師가 出席할豫定이다

今年忠南道의 農事改良低資

【大田】忠淸南道의 昭和十一年一月以降 八月까지의 農事改良低利資金은 一、五六〇、五〇〇圓인바 前年同期에 比하야 約三七二、〇〇〇圓이 增加되엿는데 그資金內譯은 肥料資金一、五一〇、五〇〇圓이고 其他資金이五〇、〇〇〇圓이라하며 各郡別配當額은如左하다

郡別	貸付者別	肥料資金
大德郡	東拓	一五、〇〇〇圓
	殖銀	一一、五〇〇
燕岐郡	東拓	—
	殖銀	三〇、〇〇〇
公州郡	東拓	—
	殖銀	九五、〇〇〇
論山郡	東拓	七〇、〇〇〇
	殖銀	六九、〇〇〇
扶餘郡	殖銀	九〇、〇〇〇
舒川郡	東拓	一〇〇、〇〇〇
	殖銀	一〇〇、〇〇〇
保寧郡	東拓	六五、〇〇〇
	殖銀	一六、〇〇〇
靑陽郡	殖銀	三〇、〇〇〇
洪城郡	殖銀	六六、〇〇〇
禮山郡	東拓	五五、〇〇〇
	殖銀	六五、〇〇〇
瑞山郡	東拓	三六、〇〇〇
	殖銀	三六、〇〇〇
唐津郡	東拓	五〇、〇〇〇
	殖銀	四〇、〇〇〇
牙山郡	東拓	一〇、〇〇〇
天安郡	東拓	九一、〇〇〇
計	東拓	五九二、〇〇〇
	殖銀	六五八、五〇〇
	東拓自己借受	二六〇、〇〇〇
合計	東拓	八五二、〇〇〇
	殖銀	六五八、五〇〇

農家의아러둘 春肥에對한常識

❶ 購入은이럿케하라

農閑期도 이제는 太半이지나고 얼마남지안흔 春耕期를 압둔 農家에서는 農耕에對한 여러가지 準備가 必要할것이다 여러가지 準備라고하면 種子에對한것도 잇슬것이오 肥料에對한것 農費에對한것 農具에對한것 其他여러가지가 잇슬것이나 여긔에서는 肥料에 對하야 멧가지 重要한點을 드러서 參考에 供하려한다

近年 朝鮮農家의 施肥熱은非常히昂騰되여 自給肥料、販賣肥料(金肥)를 論할것업시 需要가 增加되는터인데 一般農家의 肥料에對한 知識이 普及되지못한 感이 업지안하서 그것이 農家經濟에 미치는 影響이적지안타고생각된다 이제 實際問題에對하야 簡單히 멧가지를들면

一、金肥購入에 對하야 注意할要項

가、肥料取締規則에잇서서도容量、皆掛(알맹이만 計量하지안코 包裝채로 저울에다러서 取引하는것)、個數取引等을 禁하고잇지만 大體 金肥購入에잇서 가장 安全한 方法은 重量取引이라고한다 例컨대 叺當十貫入이라함은 皆掛가 十貫이오 正味로 九貫五百匁인데 잘못하면 皆掛이五百匁以上되고 正味가 九貫五百匁로되는것을 속아서 사는弊端이업지안타 가튼理由로 個數取引에잇서서도 個數만을 計算하야 正味에잇서 奸商들에게 속아 사는일이적지안타

나、肥料는 그含有하는 肥料成分의 多寡及形態에 依하야 價値가 評價되는만큼 容量이나 重量만가지고도 論하기가 困難하다 例컨대 過燐酸에는 一五度過燐酸 三〇度過燐酸이잇는데 前者는 正味十貫中에 一貫五百匁의 有效燐酸成分이 包含되고 後者에는 三貫의 有效燐酸成分이 包含되여 잇슴으로 前者는 後者의 半額으로 사는것이 普通인데 實際取引에잇서 前者를 後者로 잘못생각하고 속아사는일이 업지안타 그러면 이重要한 肥料의 含有量及形態를 如何히 鑑別하여야 되는가하면 肉眼으로 鑑別하기어려운 肥料에는 肥料取締規則에依하야 保證票가 添附되여잇슴으로 그것을 잘보아서 사는同時에 正品을 잘判斷한後에 購入하여야된다 卽肥料成分의 濃度에依하야 取引할것이다

다、肥料購入에잇서 量을 決定하는데는 될수잇는대로 過不足이生하지안토록하여야될것이며 이것은 保證票의 成分과 正味重量을 計算하여보아서 所要의 個數를決定할것이다

라、肥料의 實價라는것은 肥料上 또는 肥料의農業的價値를말함이오 肥料의 價格이라는 것은 肥料가 市場에서 販賣되는 商業的價値를 말하는것임으로 市價와 實價가 반드시 一致되는것은아니다 그러므로 市價가 低廉하고 實價가 만흔것을 그때그때의 市價에依하야 購入하는것이有利하다 卽 肥料成分의 單價가 싼것을 選擇할것이다

마、肥料의 名稱 又는 廣告宣傳에 誘惑되지말일 例컨대 肥料取締規則에서는 特製、別製、新製、特許、標記、德用等의 名稱을 不許함에도 不拘하고 地方肥料商中에는 奇妙한 方法으로 農家를 弄絡하는 弊害가 업지안타 그러니 實實的肥料를 鑑別購入할것이다

바、特히廉價라고해서 사지안흘일 싼物件에 조흔것이잇는原則이업다 正當한 肥料에는 그에 相應한 價格이잇는것이다 싼것을擇하다가 意外의 損害를보는일이잇다

사、信用잇는 商店에서 現金으로살일 商店에따라서는 不純한것이업지안타 될수만잇스면 信用잇는 肥料專門商으로부터 買入하는것이 安全하다 그러고 外上으로사면 思近肥料를 사는外에 高利를支出하게됨으로 不得已한 境遇에는 農會나 金組方面의低利資金을 利用하는것이 조흘것이다。(계속) (一牧生)

今年慶南에서 叺筵大增產

五百五十六萬枚生產을目標

【釜山】慶尙南道에서는 今年度에 叺及筵製織을 道內各更生部落에 奬勵하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一部落에 機械를 三十臺式 道農會로부터 配給한다는데 그 計劃은 肥料用叺 一百六萬枚、鹽用叺 二百五十萬枚、鹽用叺五十萬枚 合計 四百六萬枚로 그 價額은 約四十八萬七千圓에 達하리라하며 또 筵은 一百五十萬枚로 그價額은 約十五萬圓이라하야 總合 六十三萬七千圓에 達하리라한다

希望者에게 藥草實費配布

京畿道에서農家에奬勵

朝鮮에서 取引되는 藥用植物은 人蔘、阿片을除하고 年約百五十萬圓에 達하는바 此中 朝鮮內 生產額은 百萬圓이고 右中 京畿道의 產額은 八萬圓에 達하며 其他는 中國滿洲로부터 輸入되고잇는現狀인데 近年 藥에 關한研究가 進行됨을따라 需要가 增加하고잇서 京畿道에서는 此點에 鑑하야 農村住宅附近의 空地 其他 荒蕪地를 利用하야 藥草를 栽培식히어 農家副業으로 奬勵하기爲하야 昨年四月開豐郡領南面 龍興里에 藥用植物硏究所를 設置하고 各種을試作硏究中이든바 昨秋收穫한種苗를 今回希望者에게 實費로 配布하기로 되엇다

鎭南浦漁獲高 三十二萬九千餘圓

【鎭南浦】漁港鎭南浦의 昨年中 漁獲高는 三十二萬 九千百八十六圓이라는 굉장한數字를 나타내엇는바 前年에比하야 九萬九千餘圓의 增加를보앗다고한다

魚油直接購入 石鹼業者가要望

總督府에서愼重考慮

硬化油카ー텔의 壓迫에 石鹼製造業者는 朝鮮產魚油의 直接入手를 希望하야 朝鮮內關係는大體 殖產局의 了解가 成立되엇스나 過般來 大阪、中國、九州의 各石鹼製造業者代表가 入朝하야 日本內地石鹼業者의 魚油直接購入을 要望하고 連日 殖產局과 折衝中인데 總督府로서는 아직 正式態度를 決定치못하얏스나 魚油共販入札制의 制度에 支障을 生치안는 範圍에서 業者의 要望을 容納하려고 目下 此等에對하야 愼重考慮中이다

質疑

重複質問말고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確하게

問 生이栗木栽培를 하고저하오니 栗木栽培에關한 書籍及販賣所를 下敎하여주시오 (永興一讀者)

答 東京市 京橋區 京橋三ノ六 有誠堂發賣 兵藤直彥著『實驗栗栽培講話』定價六十錢 東京市淀橋區柏木町七一四 日本種苗合資會社發行 古谷春吉著『栗樹栽培』定價四十錢等이잇습니다

◇

問 朝鮮內에 商工會議所가設置된 都市를 下敎하시오 (江原嶺東 一讀者)

答 朝鮮商工會議所는 京城府外에 十四個所가 잇는데 府名及 所在地는 다음과 갓습니다

朝鮮商工會議所 京城府長谷川町
開城 同 開城府東本町
仁川 同 仁川府山形町
大田 同 大田邑本町
群山 同 群山府明治町
木浦 同 木浦府仲町
釜山 同 釜山府西町
大邱 同 大邱府東門町
平壤 同 平壤府山手町
鎭南浦 同 鎭南浦府三和町
新義州 同 新義州府弥生町
咸興 同 咸興府昭和町
元山 同 元山府海岸通
淸津 同 淸津府敷島町

◇

問 病虫害豫防用으로 使用하는 石灰乳의 製造法을 下敎하시오 (金堤愛讀者)

答 使用目的에따라 分劑이다르므로 여긔서는 그製造法만을 말하겟습니다 密閉하여두엇든 生石灰를 所要의 量만치 꺼내어 이것을 木製桶이나 磁器製器에 당으든에 小量의 水를 注入하야 充分히 溶解하고 適當한 量의 水를 加하여 使用하는데 噴霧器를使用할時는 噴穴이메여서 使用이 困難함으로 綿布로걸러서 使用하는것이좃습니다

往十里의미나리

한줌두줌뜨더모아서 勿驚! 年產十一萬圓

京南特產 ❶

京南支局 一記者

京南地方의 特產物이라하면 自古로 地域이 廣大할뿐더러 朝鮮의 心臟인 京城과 隣接한 關係로 特異한 產物이 만타 例를들면 傳說에서 비저나온 梨泰院의 僧桃와 廣州의 金剛草가튼것도잇고 또 이地方에서만되는 固有的產物도잇스니 그는廣州와利川의 早熟種陸稻라하겟다 元來 特產物이라하면 어느 國家와 어느 地方을 毋論하고 다잇는 該地方의 鄕土色을 가진 特徵產物을 말함이데 京南地方에는 許多한產物中에서도 唯獨嚴冬酷寒期에 越等產出되는 超特產物며개가잇다 그中 먼저 京南의 미나리(芹)를 말해보자 『미나리』는 他地方에서도 產出되지만 京南의 미나리와가티 四時良節 產出되는 地方도업슬것이다 또 風美와 味覺으로도 이런 品質은업슬것이오 產額으로 말하드라도 여긔처럼 만치는 못할것이다 이 『미나리』의 由來는 한文獻의 餘畧이업서 자세히알수는업스나 王都漢陽萬戶長安의 隣接地帶로서 曠卒油田은 長安人의 朝夕飯膳을 料理하는 耕地로 使用하는것이 簡益할것가태서 京南의 門外閑農들이 이『미나리』를 栽培한것으로據視된다 近來에와서는 長安人들에 局限되어 消化되든 이『미나리』가 차차 지게꾼들의 등짐을 버서나 汽車로 南으로는 멀리 玄海灘을 건너가고 北으로는 滿洲國에 使節的食料品으로 輸出되여간다한다 그의 產額을 보건대 한주먹식 氷穴에서뽑아낸 總額이

▲昭和八年度 六萬二千圓
▲昭和九年度 八萬五千圓
▲昭和十年度 十一萬二圓

으로 엄청나게 놀나운數字로 逐年 盛產되고잇다 今年에도 舊臘을 압두고 產地인 往十里、杏堂里、新村里、新設里、東幕上里에서는 벌서부터 巷間의 食料品으로 供給하고저 方今 採取해내기에 忙殺하고잇는데 今年度時勢는 每束二錢五厘乃至四錢이라한다

(寫眞=氷穴에서『미나리』採取光景ー往十里所見)

特產市勢

▲鎭南浦(二十日)

品名	等級	價格
‖苹果‖		
國光	優等	三、一〇〇
同	特等	三、〇〇〇
同	一等	二、八〇〇
同	二等	二、五〇〇
同	三等	二、二〇〇
倭錦	優等	二、三〇〇
同	特等	二、二〇〇
同	一等	二、〇〇〇
同	二等	一、七〇〇
同	三等	一、四〇〇
‖玄米‖		
陸羽	三等	一九、六〇
陸羽	四等	一九、四〇
福坊主	三等	一九、四〇
福坊主	四等	一九、二〇
龜尾	三等	一九、〇〇
同	四等	一八、八〇
丸ナ	四等	一八、八〇
同	五等	一八、五〇
在來種	四等	一七、四〇
在來種	五等	一七、三〇
白米	一等	一一、九五
同	二等	一一、七五
‖正租‖		
陸羽	一等	八、五〇
同	二等	八、三〇
同	三等	八、一〇
福坊主	一等	八、四五
福坊主	二等	八、二五
同	三等	八、〇五
龜尾	一等	八、二〇
同	二等	七、九〇
同	三等	七、八〇
毛租	一等	八、一〇
同	二等	—
在來	一等	八、〇〇
同	二等	—
愛國	一等	—
同	二等	八、三〇

▲新義州(二十日)

品名	單位	價格
‖穀物‖		
白米 一等	一石	三〇、〇〇
同 二等	同	二九、〇〇
玄米 三等	一石	二九、〇〇
同 四等(陸羽)	同	二九、〇〇
同 (龜尾)	同	二八、〇〇
正租 陸羽	百斤	八、三〇
同 龜尾	同	八、〇〇
同 在來	同	七、〇〇
粟 朝鮮產	一石	一二、四〇
同 滿洲產	同	一一、九〇
大豆 三等	一石	一七、〇〇
同 四等	同	一六、〇〇
小豆	一石	一六、〇〇
玉蜀黍 赤	一石	一〇、五〇
同 白	同	一〇、八〇
高粱	一石	一一、七〇
‖原木‖(義昌製材表準)		
紅松 丸材	尺締	七、七五
杉松 同	同	六、二〇
落葉松 同	同	六、三〇
‖製材‖		
紅松 上	同才	〇、一三五
紅松 普通	同	〇、一二六
杉松 普通	同	〇、一〇五
落葉松 上	同才	〇、一一八
落葉松 普通	同	〇、一〇一
紅松板材 普通	坪	一、一九
(八寸上 二分五厘板 長1K)		
杉松板材 普通	坪	〇、九九
(八寸上 二分五厘板 長1K)		

雜穀(二十日)

京城市勢

品名	單位	價格
大豆 龍山三等	石(新)	八、九〇
同 長湍三等	〃	八、八〇
同 金川三等	〃	八、六五
粟 鐵嶺機械	百斤(新物)	八、九〇
同 四平街	〃	八、九〇
同 天津 仁川乘	〃	八、五〇
胡麻 八面城	〃	一五、〇〇
綠豆 八面城	〃	七、七〇
高粱 京義線(新物)	石	一三、二〇
玉蜀黍 新義州	百斤	六、〇〇
大麥 秋物京釜線	石(新)	九、一〇
同 春物鎭南浦	石(新)	八、一〇
小麥 沙里院	ーラー石 新物	一八、六〇
同 新幕	同 新物	一八、一四
韓白 上	〃	二八、二〇
丸糯玄米三等	百斤(新物)	一四、〇〇
糯米 玄米		四〇、〇〇
同 白米		四二、〇〇
滿洲蕎麥	京城一石渡	一〇、五〇

仁川市勢(러ー르渡)

品名	單位	價格
大豆 龍山	石三等	八、九〇
同 長湍	〃	八、八〇
同 金川	〃	八、七〇
同 海州	四等	八、〇〇
同 天安	〃	七、六〇
滿洲粟物 海城	百斤	八、四五
同 遼陽	〃	八、五〇
同 奉天	〃	八、六〇
同 鐵嶺	〃	八、六五
碎米 白米		—
同 玄米		一三、七〇
新小麥(海州)		一七、七〇
〃 (沙里院)		一七、九〇
蕎麥(黃海道新習通)		一〇、〇〇

群山市勢(倉渡)

品名	單位	價格
大豆◎三等 忠南	石	一七、〇〇
同 全北	〃	一六、八〇
大麥 上物	石	一〇、〇〇
裸麥 熊本產		一七、〇〇
同 朝鮮物		一六、六〇
小麥 上物	石	一六、〇〇
小豆 全州產		一三、〇〇
同 北朝鮮產		一七、〇〇
蕎麥 沃川產	石	一〇、〇〇
粟 (鐵嶺奉天)		九、〇〇

木浦市勢(倉渡)

品名	單位	價格
大豆 全南物無檢		一六、五〇
粟 滿洲機械	百斤	八、七〇
同 天津	〃	八、五〇
裸麥 日本內地物	石	七、三〇
同 全南物		六、〇五
小麥 全南物	石	一七、八〇
同 島物	石	一六、〇〇
赤小豆 全南小粒		一七、五〇
同 〃大粒		一三、〇〇
白胡麻 滿洲物	一石	二六、〇〇
綠豆(全南)	石	二一、〇〇
白麥(日本內地)	〃	一五、三〇
大麥(全南)	〃	九、〇〇
蕎麥	〃	一〇、〇〇

釜山市勢(倉渡)

品名	單位	價格
大豆 慶南三等	石新	一八、〇〇
同 〃四等	〃	一七、七〇
小豆 安東無格	〃	一八、〇〇
同 黃海不合	〃	一七、〇〇
大麥 慶南上物	〃	九、五〇
裸麥 日本內地上物	百斤	七、三〇
同 普通物	〃	六、九〇
日本內地平麥 上物	石	一二、〇〇
小麥 黃海道三等	新	一九、四〇
同 慶北不合格	〃	一七、九〇
同 慶南無格	〃	一五、七〇
白麥 日本內地物上	〃	一五、三〇
同 朝鮮物上	〃	一四、五〇
臺灣丸糯	百斤	一四、〇〇
粟 日本內地物	石	二一、三〇
同 滿洲物	百斤	八、七〇
綠豆 上品	石	二二、〇〇
胡麻 赤	百斤	一四、五〇
同 白	〃	一四、〇〇
蕎麥 慶南產		一一、〇〇

大邱市勢(倉渡)

品名	單位	價格
大豆 慶北四等	石(新)	一六、五〇
同 慶北未檢查	〃	一四、〇〇
大麥 精選	〃	一五、〇〇
同 並選	〃石	一一、〇〇
小麥 上	〃	一五、五〇
同 普通	〃	一四、五〇
小豆 新慶北 大粒	〃	一九、〇〇
同 小粒	〃	一八、〇〇
高粱 滿洲物	百斤	六、〇〇
綠豆 同	石	二一、五〇
蕎麥 同	石	二二、〇〇
糯米 慶北物 玄	石	三三、八〇
同 白	〃	三五、〇〇
白胡麻 滿洲物	百斤	一四、〇〇

鎭南浦市勢

品名	單位	價格
大豆 順川三等	新	八、一〇
同 長連三等	〃	九、〇〇
同 信川三等	〃	八、八〇
同 載寧三等	〃	八、八〇
同 平壤三等	〃	八、四〇
同 安岳三等	〃	九、一〇
(루ー레)		

元山市勢(倉渡)

品名	單位	價格
大豆 咸南㊁特等	石新	[illegible]
同 〃一等	〃	[illegible]
同 〃二等	〃	[illegible]
同 〃三等	〃	[illegible]
同 鐵原㊁三等	〃	[illegible]
朝鮮粟	石	一三、〇〇
大麥未改良	石	一三、〇〇
小麥㊉三等	〃	八、〇〇
小豆平南物	〃	一六、八〇
粟 四平街黃粟	百斤	八、六〇
同 鐵嶺	〃	八、六〇
同 天津	〃	—
同 昌圖精粟	〃	八、八〇
小麥 永興產	石	一二、〇〇
同 安邊產	〃	一五、〇〇
同 黃海道產	〃	一八、五〇

咸興市勢(現物倉渡)

品名	單位	價格
咸興大豆	三等石	一七、六〇
粟 鐵嶺	百斤	八、七〇
同 四平街	〃	八、五〇
同 昌圖	〃	八、八〇
同 天津	〃	—
同 奉天	〃	八、八〇
白麥 (日本內地)	石	一五、六〇

淸津市勢

品名	單位	價格
大豆 淸津地	三等石	一七、〇〇
〃 會寧	一等〃	二〇、二〇
〃 〃	改良三等〃	一七、三〇
間島大豆(保稅)	百斤	五、七〇
牡丹 大豆	〃〃	五、四五
五常 大豆	〃〃	五、五〇
茶目	三等〃	一六、三〇
四平街粟	百斤	八、九〇
山東粟	〃	八、八〇

阪神市勢(標準價)

品名	單位	價格
▲大豆(一、二月限)		
滿洲特撰白眉	百斤(新)	八、九五
同 改良	〃〃	七、七五
同混保 一等	〃〃	七、五〇
滿洲濟赤小豆	〃〃	八、三〇
同豐通赤小豆	〃〃	七、二五
北海二等大納言		一三、四〇
〇延 取引		
滿洲赤小豆	一限	七、三三
同 〃	三限	七、四三
北海大納言	二限	一三、四〇
同 〃	一限	一三、五〇
▲沖着大豆(一、二月限)		
淸津積茶目三等大豆	石	一六、九〇
滿洲混合一等大豆	保稅	六、五五

關門市勢(倉渡)

品名	價格
逢萊二期中部三等	一一、三〇
同 二期北部三等	一一、二〇
臺灣丸糯期北部三等	一四、一〇
北海澱粉	八、八〇
北海手亡豆二等	九、八〇
青碗豆二等新	一二、〇〇
中長鶉豆三等新	一二、〇〇
北海黑豆中粒	一二、〇〇
北海小豆 新	一三、五〇
大納言小豆二等〃	一三、八〇
金時豆二等〃	一五、八〇
九州小麥(新)	八、七〇
下關小麥	八、四〇

滿洲粟市勢

百斤建(新麻袋一枚共) 輸出稅含

品名	渡	價格
四平街機械	安東渡	—
八面城特選新	同	—
双廟子特選	同	—
昌圖機械新	同	—
昌圖特選新	同	—
開原	同	—
通遼特選新	同	—
洮南特選	同	—
昌圖糯粟	同	—
赤高粱	同	—
黑高粱	同	—
新京玉蜀黍	驛渡百斤	—
四平	同	—
開原	同	—
奉天	同	—
北滿粟哈爾賓渡金建		—
高粱四平街在庫		—
粟四平街在庫		—

(舊正月關係로休市)

穀用叺市勢

(二十日) (市中販賣價)

	天	地	人
釜山	一三〇	一六五	一三四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五七八	同	京畿楊州郡住內面 抱川郡靑山面	十二月廿三日	京城府鍾路一丁目 車敏天 代表者 高陽郡恩平面 劉準祐
一二五七九	金銀鑛	平北楚山郡板面	同	雲山郡委延面 代表者 白洛薰 同 李昊鉉 同 尹鍾烈 同 白南勳 同 崔基泰
一二五八〇	砂金	全北南原郡金池面、水旨面 全南谷城郡谷城面、古達面	同二十四日	群山府錦町 大谷磐男
一二五八一	金銀鑛	平北泰川郡江東面 寧邊郡八院面	同	京城府竇動洞 代表者 尹命殷 公州郡反浦面 南相說 京城府淸進洞 盧鎬燁
一二五八二	同	忠南扶餘郡窺岩面	同	同孝子洞 代表者 金鑾應 公州郡公州邑 文洪範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〇〇二	慶北盈德郡柄谷面	昭和十年十二月二十一日	盈德郡江口面 代表者 金永奎 同盈德面 金永道 李健鎬
九六九二	海州郡月峰面、壯谷面、代車面	同	東京市麴町區丸ノ內 黃海道鑛山株式會社
九七一四	同月峰面、代車面	同	同
一〇七八九	端川郡水下面	同	同
一二〇九四	同	同	同
八九〇五	永興郡鎭坪面、仁興	同	京城府益善洞 代表者 同嘉會洞 同端嶺洞 永興郡鎭坪面 吳龍善 吳[illegible]善 金榮石 金貞武
一〇七九六	長津郡新南面	同	京城府明治町 小林鑛業株式會社
一〇一五八	完州郡所陽面、鎭安郡富貴面	同二十六日	群山府大和町 津坂熹藏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七八三〇	江原金化郡近北面	昭和十年十二月十九日	井爪猶次 死亡脫退 今井蘭任意脫退함
一一三九一	全北淳昌郡淳昌面八德面	昭和十年十二月二十三日	梁源模任意脫退함
同	同	同	同
一一〇九四	江原金化郡任南面	同	金基俊任意脫退함
八四八三	忠南扶餘郡石城面	同廿四日	大澤新三郎任意脫退함
同	同	同	椿猪之助任意脫退함
一〇七九六	咸南長津郡新南面	昭和十年十二月廿一日	二宮常一任意脫退함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八〇四五	京畿富川郡德積面	昭和十年十二月十九日	廢業
一〇六四四	平南江東郡高泉面	同	同
九三九七	忠北忠州郡山尺面	同二十日	同
九七三七	京畿驪州郡介東面	昭和十年十二月廿一日	廢業
八八二五	黃海平山郡文武面西峰面	同	同
八一八二	平北昌成郡東倉面	同	同
八一八三	同	同	同
八二三六	同大倉面	同	同
八二四一	同	同	同
八二四六	同	同	同
八二四七	同	同	同
八二四八	同	同	同
八二四九	同	同	同
八二五〇	同	同	同
八二五一	同	同	同
八二五二	同	同	同
八二五三	同	同	同
八二三二	同 祐面	同	同
八二三三	同	同	同
八二三四	同	同	同
八二三五	同	同	同
八二三六	同	同	同
一一四八〇	咸南新興郡上元川面、下元川面	同	同
九一二八	忠北槐山郡沙梨面	昭和十年十二月二十三日	廢業
九五四〇	同永同郡永同面	同	同
九三二六	忠南公州郡正安面	同	同
一〇三七三	同燕岐郡全東面	同	同
八五三〇	全北任實郡新德面雲岩面	同	同
一二二七〇	平北昌城郡新倉面 朔州郡南山面	同	同
九二二三	江原原州郡興業面	同	同

火賊 林巨正 (244)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七의四

배돌석이가 안해를 돌아보며

『항복까지 방주 또 무에 부족한가』

하고 우스니 그안해가 우슴의 말은 대척안코 동생을 가르치면서

『이애는 안데리고 가세요』

하고 물엇다 배돌석이가 처남아이더러

『너의누님이 하늘쏫까지 추어올리는 황두령두 보입구 또 달은어른두 보입게 날 딸어오너라』

하고 말하니

『점잔치못하게 아이들에게 무슨말슴을 그러케하세요』

하고 그안해가 책망하얏다

『고대를 뻔뻔이 점잔이 웨 잇것나요』

『점잔 더하시네』

『자네가 남의집사내를 하두 칭찬하니까 샘이 나서 그러네』

『오늘은 내처 실여곳말슴만하니 웬일이시요』

『샘난다는게 실여슨말이 아닐세 내가 샘발곳사람인줄 자네 몰으나』

배돌석이가 한바탕 하하 우슨뒤에 처남아이를다리고나갓다

배돌석이안해가 점심먹은 설거지를 해치우고 나드리옷을 갈어닙고 꺽정이집으로 올라왓다 꺽정이집은 오가가 맨처음 살든 터인데 집이 전만큼 크지는못하나 그래도 안채 사랑채가분명하고 사랑방과 안마루는 전모양 널찍하얏다 배돌석이안해가 안마당에 들어설때 꺽정이의안해 백손어머니가 무엇을보살피는지 마당에서 돌아다니고 잇섯다

『무어하세요』

『자네가 웬일인가』

『좀 보이러왓지요』

『마루로 올라가세』

돌이가던 마루에 올라 와서 안진뒤에 배돌석이안해가 백손어머니를 바라보다가

『형님 신색이 조치못하니 웬일이세요』

하고 물엇다 백손어머니의얼플이 남의눈이 뜨일만큼 전만 못하얏다

『요새 잘먹지를못해서 그래』

『체증이 기신가요』

『비위가 뒤첫나봐 음식냄새만 마터도 욕직이날때가 만허』

『형님 애기서시는게로구먼』

『우리 시누님도 작구 애라고 그러시지만 애가 다 무어야 병이지』

『왜애기를못나흐실년세입니까』

『애를 나흘것가트면 벌서 나혓게 백손이 나코 속에 냉이 들어서 다시 못나흘레야』

『그래도 압니까 의원을 청해다가 맥을 보이시지요』

『그러지안허도 시누님이 수선을 떨어서 의원을 불러갓다네』

『어듸의원을 불러갓세요』

『이기와잇는 허생원을 불르러 갓서』

『허생원이 지금 어듸가잇나요』

『우리가 광복으로 갈때 그는 자긔고향으로 갓지』

『여기 의원하나는잇서야지 만일 급한병이잇스면 먼데의원을 언제 데릴러가고잇세요』

『허생원이 이번에 오면 다시 붓잡어둔다는가부데』

『누가 데릴러갓세요』

『신서방이 갓서』

『신서방이라니요』

『신시위말이야』

『네 그래서 신시위가 어제나 제 말을라고 압산으로 올라갓구먼이요』

『어제 갓스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올테지』

『그런데 참 애기어머니께서는 어듸 가섯세요』

『애기가 나물뜯으러가는데 딸아가섯네』

『곳 오시까요』

『자네오기전에 막 나가섯네』

『그럼 좀 일직올껄 그랫네』

『무슨말슴할일이 잇나』

『두분형님께 다말슴할일이 잇서요』

『무슨일이야』

『송도 단오노리 구경가시자구 말슴하러 왓세요』

『자네 가나』

『네 갈텝니다 저의 밧어른이 숙직할처소까지 다 어더노흘테니 여러분 뫼시고 구경나오라고 동생을 전위해 보냇세요』

『그러지안허도 구경이 가고십든차에 잘되엇네』

『형님 참말가실래요』

『암 가다뿐이야』

『애기어머니께서도 가시까요』

『구경속이조흐시니까가실테지』

『저는 못뵈압고 갈테니 오시거든 말슴해주세요』

『그려게』

『그러구요 온길저녁에 여러집 안식구를 모아가지고 구경갈 사람을 물어봐주세요』

『그래봄세』

『동생이 박게 나왓지만 그동안에 가서 혼자잇슬른지 몰으니까 곳 가겟세요』

『저녁에 다시오게』

『저는 다시올꺼업지만 오라시시면 오지요』

배돌석이안해가 가랴고 마루에서 나려설때 마침 애기어머니가 박게서 들어왓다